

## 국내 유일본 아동의학서 집성유유일심(集成幼幼一心)



서명: 집성유유일심(集成幼幼一心)

판본: 필사본(筆寫本)

간행연대: 1841

정조(正祖) 때 의관(醫官) 이정집(李廷楫)이 편찬한 아동 의학서

이정집은 1786년(정조 10) 문효세자(文孝世子)가 홍역으로 죽자 병에 대한 대처를 잘못 했다는 죄목으로 함경도 경원부(慶源府)로 유배되었다가 1809년(순조 9)에 유배에서 풀려났다.

김기헌(金杞憲)이 신축년(辛丑年) 작성한 서문에 따르면 이정집은 완산(完山) 사람이며 명의(名醫)로 이름이 높았으나 불의의 사고로 유배되어 30여 년 간 귀양살이를 하며 아동 의학서 10여 권을 지었는데 남아 있는 것이 3권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 책은 그동안 1781년(정조 5) 간행된 책으로 학계에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이정집이 유배에서 풀려난 것은 1809년이고 김기현이 이정집은 돌아가신 할머니의 형제라 하였으니 김기현이 서문을 쓴 신축년은 1841년(헌종 7)이 합당하다.

궁중 의관을 역임한 이정집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소아과 병증에 대한 구체적인 증상과 처방을 수록하고 있어 가치가 높다.



어린아이들은 자신이 아픈 곳을 명확히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얼굴색과 손가락의 삼관(三關)을 살펴 병을 진단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1953년 『한국의서지(韓國醫書志)』를 편찬한 미키 사카에(三木榮) 소장본이 일본에 전하며 국내에서는 그 동안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도서관 소장본이 국내 유일본으로 확인되어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 **집성유유일심 전시 안내**

- 전시기간: 2022. 7. 1. ~ 7. 29.
- 전시장소: 중앙도서관 2층 로비
- 관람시간: 평일 9:00~18:00